

“그 약속 기억하나요?”

“우리 친하게 지내자”

새끼손가락 꼬옥 잡고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2000년 6월 13일 평양 순안 비행장.

남북의 지도자가 두 손을 맞잡을 때 통일은 벌써 열렸습니다.

그리고 자주의 원칙으로, 낮은 단계 연방제로 통일하자는

‘남북공동선언’에는 그들 두 지도자의 선언한 도장이 찍혔습니다.

2000년 7월 11일.

정리해고의 칼바람이 몰아닥친 제2의 경제 위기 속에서

“합의 없는 구조조정은 없다”고 정부는 노동계의 굳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전, 전국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5~30%에 이를 것이라며 무거운 보도를 접하며 대학당국은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고지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약속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젖은 땀 손에 쥐고 손가락 걸었던 고마의 바람부터

남과 북이 통일하자는 민족사에 남을

귀중한 선원문과제 보물창 하기에 너무나 간절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이 생명력을 불어넣는 한해를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자적 약국은 휴지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수경 대학부 정치자
(서유림 · 불어 00)

류지훈 수습기자(사회 · 신문방송 00)



외대, 대학문화를 찾아서

1960

“서양문예이론을 소개하는 학생들의 참신한 글을 학보를 통해 접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양식이었다. 문학청년이었던 나로서 대학의 낭만적 분위기를 어느 정도 선도했던 학보의 고마움을 기억하고 있고 평가하고 싶다”

낯은 지면을 넘길 때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한 묘한 이름의 외국작가들의 작품, 새로운 외국 문에서
조가 소개된 것을 보며 낭만적이고 아카데미즘적이던 외대의 분위기가 훨씬 느껴진다.

또한 덧붙여 외국어를 포괄하여 점차 세계화를 흡수하고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인재를 양성하는

이런 것들을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 당시 세계문화를 접수하고 국제무대에서 활약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외대설립의 목적이자 특색이었기에 외대란 곳에 처음 자리잡은 문화는 외국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배워가는 과정속에 함께 했다.

‘전교를 망라한 총체적인 외국시와 외국의 특이한 음악을 감상할 기회를 가지므로서 대외적으로
는 본 대학의 문학적 실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대내적으로 학생상호간의 친목을 촉진하고 정서를 함
양하는데 있다’는 목적 아래 시와 음악의 밤이 열리기도 했고(1959년 5월 20일자), 그밖에도 원어연
극, 외국어 웅변대회, 외국시 감상회 등의 학생행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학생행사들이 나아가 1960년대 초 써울을 활동으로 제기된다. 지금의 공동체 문화를 중시하는 동아리 활동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공부 이외의 작은 모임, 과의활동, 말 그대로 외국식 써울을 활동의 시작이었다.

1970

기존의 숨막힐 것 같은 사회질서에 대한 도전과 저항의 몸짓, 그로 인해 민중들이 기대를 가지고 주목했다는 점이 특징인 본격적인 대학문화가 눈을 뜬 것은 1970년대이다.

이장희, 트윈폴리오, 생맥주, 통기타, 그리고 청바지...

폭작적인 사회질서 속에서 기존 지배문화의 문법을 뒤엎으며 등장한 포크문화의 열풍과 60년대 내 내 지속된 전세계적 청년문화 운동의 열풍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불기 시작한 것, 어두운 정치상황에서 시대의 양심을 자처하던 대학인들은 미팅과 클래식 음악다방에서의 한가한 오후는 70년대 대학 문화를 대표한다.

이여 권영(본고 무역학과 68학번)씨는 “휴교, 게임원, 삼선개헌반대운동으로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조차 없었다”고 전하며 암흑과도 같은 어려운 시기가 더욱 더 참여하고 고민하는 대학문화를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전했다.

비록 프로문화가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것이어서 다소 어느정도의 서형화도를 겪었지만 1970년대 대학문화로서 또한 보편의 의미인 정통과 저항정신을 취해있고 그를 바탕으로 우리의 전통문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동안 천박하고 미약한 문화로 여겨져 왔던 한국문화의 한 장로로 불리게 되었다. 이것은 71년 서울대가 최초로 '가변연구부'를 창설함으로써 전 대학교로 불거기 시작한 것은 민중문화의 아يا기를 입에서 털어놓으려 한다. 그 아야간만 시대의 모순적 상황과 착잡한 폭로와 개혁의 의지였다. 그 후 판소리, 탈춤, 농악, 민요 등 한국의 한국고유문화 계승작업은 늘어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980

유신철폐운동 이후 김옥과 군대로 흩어져간 시리진 20대들은 후배들에게 격동의 80년대'를 넘겨주었다. 시대의 초입부터 광주민주화 항쟁을 겪어왔던 소위 386세대들은 도서관의 책 넘새보다 최루가스 냄새를 훨씬 더 많이 맡아야했다. 이들은 87년 박종철 사건, 이어진 6월 항쟁 등 그 격동의 현장에서는 새로운 대학화를 창조했다.

70년대가 폭락장 사회에서 속에서 기존 지배체제에 대한 저항문화의 초석을 다진 시기, 지식인으로서의 자기 고민과 반성에 사로잡혀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는 자성철학의 시대였다면 80년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의 적극적 생산자로서 대학인들이 문화 변연의 외곽에 한 층 더 다가가 소위 대학민주문화의 절정을 맞이하게 된다. 또한 연대를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저항과 투쟁의 시대였다.

70년대 이후 대학가의 전통문화에 대한 재인식을 바탕으로 계속적인 양적, 질적 광장으로 인해 자리잡은 탈춤, 풍물극 등의 전통 문화재와 이에 못지않게 대학의 문화공간에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는 연극, 노래, 영화제의 활동도 쏟아져 대학문화 공동체 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또한 서클(circle)이라고 불리던 대학내 작은 모임들은 곧 생활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출발한 '우리것을 찾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부터 서클대신 동아리라는 우리말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서클의 단순한 연대 차원으로 시작한 서클연합회는 자치적 학생공동체인 동아리연합회를 세우게 되고 대학인들의 자주성, 공동체성을 지켜내고자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1990

‘대학문화의 주인이 되어 오로지 외대에서만 할 수 있는 축제’, 외대에는 각국의 언어를 배우는 외대의 특성을 살려 여러 문화를 선보이는 세계민족 학술문화축제(세민전), 세계민족예술제(세민제)가 있다. 2000년 용인배움터 세민전을 만든 김복동은 대부분 학생 문예기를 만드는 자이언트에서 공동체

작이며 만들고 고안하는 그 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대안문화이다. 외대내 뿌리내린 세민전, 세민재의 경우 새로운 문화적 토양을 위해 실험하고 시도하는 것이고 함께 만드는 바로 대학문화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90년대를 넘어선 오늘의 대학문화를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퇴폐 문화의 운상이 대학주변에서 안산된다는 주장에서부터 이미 공동체 문화는 무너졌으며 빈부층은 이해 타산으로 뚫린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문화로 얼룩졌다는 우려에 이르기까지 대학문화를 향한 비난은 계속되고 있다.

‘대학문화, 잔치는 끝나지 않았다’

90년대에 들어와서 대학문화는 늘상 '위기'의 꼬리표를 달고 다녔다.

이에 외대학보를 통해 '외대'의 대학문화 지형을 살펴보고 앞으로 대학문화를 어떻게 일구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윤홍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대학생이 된
나의 첫 사진!

처음 만나는 친구들과 설배...
다소 초스렵고 어리숙한 나의
하지만 그곳에서의 새로운 첫
가장 눈부신 순간이었습니다.

- **새내기 새로배움터 일정**
 서울배움터 - 2월19일 ~
 용인배움터 - 2월22일 ~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SOFA는 개악됐다”

지난해 12월 28일 9차에 걸친 한미행정협정(SOFA) 재개정 협상이 타결됐다. 하지만 주요 독소조항은 그대로 남아있어 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본보에서는 주요개정안을 비교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았다.

~ 편집자

개 정 전

·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당국이 적당한 경우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행정적 및 징계적 제재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합중국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합의의사록 제22조 제2항)

· 피의자가 대한민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는 요청이 있으면 합중국 군당국이 인도되어야 하며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요청 때까지 합중국 군당국이 계속 구금한다.(본 협정 제22조 제5항 일부)

· 대한민국 당국은 또한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구금형에 복역하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구금인도를 합중국 당국이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본 협정 제22조 제7항)

· 합중국 정부는 본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사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사실과 구역을 원상회복 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본 협정 제4조)

·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에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가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개 정 후

NATO협정과 미일협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한미행정협의 적용대상도 '미군법에 따르는 자'로 개정하고 최소한의 가족의 경우는 한국의 재판관할권을 반드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점 - 형 집행의 경우 미국 측이 특별히 요청하면 '충분히 고려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삽입되었고 피의자 기소 후에는 한국 당국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이 실제적인 사법권은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1심에서 무죄일 경우 검찰이 항소할 수 없게 한 조항은 개정되지 않았다.

한국 경찰이 살인, 강간과 같은 흉악범죄 체포시 계속구금이 가능토록 개정

●문제점 -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해 구속수사를 못하게 하는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법원의 선고에 대한 형집행을 제한하고 있다. 결국 범인이 한국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고 한국에서 복역하고 있을 때 미군측에서 신병인도를 요청하면 우리나라는 호의적 고려를 하도록 되어 있어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도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있다.

SOFA에 미군의 한국 환경법령 준종 및 우리의 SOFA 대상자 안전 고려를 요지로 하는 환경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이에 근거해 환경보호 협력 조치를 포함하는 특별 양해각서를 체결.

●문제점 - 원상복구나 배상의 의무는 명시되지 않았다. 또한 '특별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아 유야무야 될 확률이 높다.

미군 기지내 시설 건축시 한국정부와 사전협의하고, 더 이상 사용될 필요가 없는 미군부지 반환을 위한 활동조사를 실시 하겠다.

●문제점 - 미군기지의 임대 기간을 정하여 때가 되면 갱신여부를 물어야 한다. 미국 측이 임대료를 우회적으로 납부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또한 우리 땅임에도 미군 측이 오히려 우리 민간항공공사에서 기지이용료(군산공항 등)를 받아 챙기는 법안은 그대로 이므로 개정이 필요하다.

보도 - 국가보안법 철폐 위한 인권활동가 단식농성

목숨 전 12박 13일 고난의 행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1월 9일까지 열렸던 단식농성에서는 국가보안법철폐 노상단식농성이 벌어졌다

12박 13일의 인권행동을 연한 단식농성을 멈추지 않을 부류의 약속으로 접니다. 오고 간 발걸음, 함께 밝힌 촛불, 연대의 노래, 물밀 듯 이어진 성명, 종조단식... 하기와 추위를 물리친 뜨거운 연대였습니다. -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에 게재된 단식을 마친 19인의 인권활동가들의 글

지난 9월(9) 인권활동가 연한 단식농성이 13일간 열렸던 단식농성을 마치고 국외의 사람 앞 집회를 마지막으로 해산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부정청탁 방지법 제정' 등 3대 개혁입법안을 주요 투쟁 구호로 지난해 12월 28일부터 단식

농성을 진행했던 이들은 평등노동, 동맹리 계단에서 스티로폼과 비닐에 의지해 13일간을 버텼다. 2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폭설도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경우에도 이들의 농성을 막지는 못했다. 농성에 참여했던 정영석(서울대 경영학과 00학번)씨는, "농성종 출고 배고픔과 양심은 별 의미가 없었다. 오로지 정신력과 양심으로 13일간을 버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99년 범민련·한민련의 국가보안법 철폐 단식농성, 2000년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단식농성과 궤를 함께 하는 이번 단식농성은 임시집회로 회기를 연장할때까지 중요입법 사안을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와

압박하고 시민·사회단체세력을 결집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운동권 학생으로 모진 수난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았던 날의 뜻한바램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다"는 농성단 총 최고령인 오영재(고) 박선영 열사 어머니, 민주화실천가족회의(고), 60세는 87년 4월 민주화를 외치며 분신한 딸의 뜻을 잇기 위해 농성에 참여 세 번이나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끝까지 농성을 지켰다.

농성단 상황실장을 맡았던 최재환(국제민주연대 상임활동가)씨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 했기에 농성지체는 일단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3월까지 이어지는 3대 개혁입법을 통과시 키도록 추진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몇 번의 논의과정을 통해 정치권이 보여준 모습은 입법외의 것이 없는 것 같다. 더 이상 정치권을 믿는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시민, 운동세력들이 직접해서 이 사안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라고 전했다. 실제로 농성단 참여자로 긴급만담요청서를 보내고 5일(금)과 8일(월)에는 민주화실천가족회의와 만담을 계획했으나 민주화실천가족회의가 참여하지 않았다.

3대개혁입법 요구만 발표로 이번 농성은 끝을 맺었다. 하지만 노상단식 농성을 경험한 이들의 말 속에서 알 수 있듯 '농성의 끝'이 아니라 '제로로 싸움의 시작'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지는 모르나, 속속 탈수 증세를 보이고 예상의외 약한후 속에서 농성을 성사한 이들의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한 걸음이다. 사회부

경제위기 상처 보듬는 200원의 온정

12년간 노숙자 쉼터 운영하는 '프란치스코의 집' 사람들

"오늘은 결코 아재의 반박이 아니다.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다." 서울 전농동 경동시장 부근에 위치한 노숙자 쉼터인 '프란치스코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기자의 눈길을 끌었던 글귀다.

글이 보이지 않는 담판한 천실 속에서 매일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일 수밖에 없는 노숙자들. 하루하루가 전날의 반복일 것 같은 그들에게 이 글귀는 어느 정도 힘이 되어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며 원장 이태훈 씨에게 인사물을 전했다.

'프란치스코의 집'은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점심을 제공하고 이밖에 노숙자를 위한 샤워 시설도 갖추고 있다.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밥을 제공해 주고 있다.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밥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렇게 밥을 많이 나누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한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대답했다. "이 분들이 식량이 참 많습니다. 아재 보면 당연한 것이지. 지금 식사를 한 후 언제 다음 식사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없거든요. 하루 한끼로 버티는 사람도 많고요."

서로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지 싫어서였을까. 식사를 하고 있는 노숙자 중에 인원이 있는 사람들도 꽤 있고 텐데도 모두가 수직만 열심히 놀리고 있을 뿐 어느 누구도 옆 사람에게 말을 걸려고 하지 않았다. 구석에서 혼자 식사를 하던 이태훈(72)씨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이곳으로 식사하러 온지 삼 년째라는 그는 "내가 내장이나 망가졌는데도 하루 한끼 정도 얻어먹고 나머지는 소주를 먹어, 하루종일 구걸하면서 돌아다니는게 보편 우리 나라 상황 말이야. 아니, 피 같은 거라도 받아먹고도 나한테 거 뭐가 있어? 그 같은 정치가 놈들."이라고 말하며 정치권에 대한 분노를 표했다.

두 시가 넘어가자 찾아오는 인원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주방에서는 음식이 더워져 더욱 부산해졌다. 주방에서 음식을 정리하던 봉사자 차 한숙(40)씨를 만나 봉사활동 중에 느끼는 참에 대해 물었다. "처음엔 허전한 차림을 한 사람만 볼 게 아니라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하게 차려입는 노인들이나 의외로 젊은층도 많이 찾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캄캄해 보이는 사람들도 이곳을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라며 지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런 의중에 초라한 행색의 한 노인이 들어와서

와 자리에 앉았고 그 노인엔 예의적으로 국대신 생수기 배식되었다. 이태훈 원장은 "음식 후라지 술 깨고도 물을 드린 것"이라며, "원래는 음주후 들어올 수 없게끔 수칙이 정해져 있는데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도 잘 받아들이고 나가주세요."라고 말했다.

처음에 이곳에서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을 때 주위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다고 한다. 노숙자들이 모여들면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일이 있었던 것. 하지만 자체적으로 규율을 정하고 선도했고 지금은 남모르게 도와주는 후원자들이 생겨났다고 한다. "근처 시장상인 분들이 많이 도와주십니다. 새벽에 물러 버스를 놓고 가는 분들도 있고요. 쌀을 1톤이나 가져다준 분도 있었어요"라고 이씨는 밝혔다.

31가 넘어 급식을 마감하고 뒷정리를 시작했다. 오전 내내 오던 비는 멈추었지만 얼룩덜룩 더러워진 바닥만 눈이 길게 젖어 행랑들의 발걸음을 늦추고 있었다. 철저하게 마친 후 길가의 눈은 차우고 나니 어느덧 시가 되었다. '프란치스코의 집'을 나설 때 배웅해주며 "다음에 또 봅시다."라고 하는 이씨

그의 말속에는 파스칼이 묻어 있다. 글이 보이지 않는 경제 위기의 어두운 터널, 나날이 높아지는 노숙자의 대오와 베풀지는 민심 속에서 노숙자의 삶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유지훈 기자

kickbutt@org.net



서울 전농동 '프란치스코의 집'에서는 노숙자 쉼터에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만나보기 - 녹색연합 주한미군기지 담당간사 이윤진

“법적 강제력 있는 환경관련 조항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녹색연합 주한미군기지 담당간사 이윤진씨

“녹색연합에 대한 소개와 활동내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녹색연합은 환경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순수 민간환경단체이다. 지난 6월에 배달환경연구소를 이름으로 설립했고 현재 전국에 10여 명의 위원을 가지고 있다.

1969년 설립된 녹색연합이란 이름으로 개칭 이후 여러 환경 단체들을 다뤘었다. 90년대에

는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 반입금지운동을 펼쳤고 그후 반핵 운동으로 확대해나갔다. 99년에는 새만금 간척사업 백지와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2000년도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은 96년부터 조사를 시작했던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28일 소파재개정협정이 타결되었는데 이중 환경조항에 대한 녹색연합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가 가장 공론화 되었던 시기였지만 이 시기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번에 합의된 SOFA협정의 의의와 '환경보조'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는 실질적 효력이 거의 없다. 오염에 대한 원상복구나 배상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환경복구 및 원상회복의 의무를 포함시켜야 하고 오염감시활동도 보장해야 한다. 미군기지의 환경관리감독권 역시 한국정부에 이전되어야 한다.

미국이 주권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상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대략 85개 국가에 미군기지가 있다. 단지

만 주둔군 협정에 제대로 된 환경관련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정도이다. 미국정부가 한국과의 협상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것은 개정이 가져올 다른 국가로의 연쇄 파급효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미군은 다른 나라에서도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만약 한국에 배상을 해주기로 한다면 다른 국가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올 것이고 이에 대한 배상은 막대한 비용으로 이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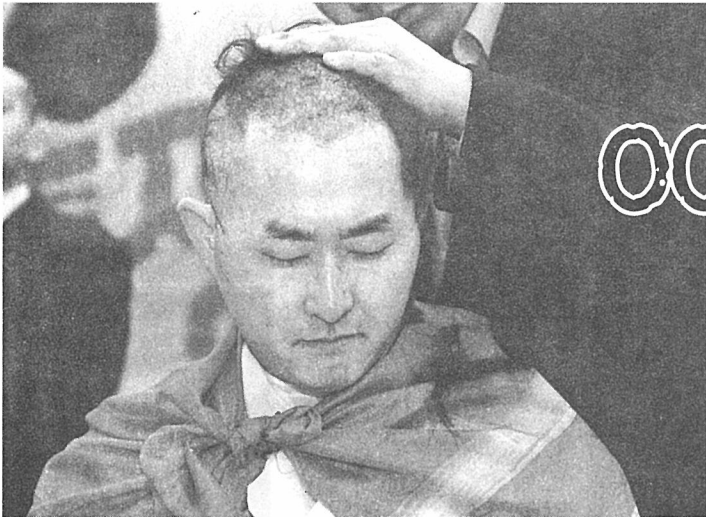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말씀해 달라.
이번 15일부터 특별양해각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이에 대한 준비를 우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국의 환경문제를 대한 국제세미나를 준비중이다. 환경에 관한 책도 발간하고 각종 조사사업도 계속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미군기지 퇴각기 공동본'이나 '소파재정 국민행동본부'와 같은 단체들과 연대의 폭을 넓혀 활동을 하며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를 더욱 어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유지훈 기자

kickbutt@org.net



학내 · 학외 00년을 돌아본다

◀ 등록금 인상, 이제 그만

"휴~" 거울발한 뒤엔 반감지 않은 등록금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온다. 지난 해 학비의 급격한 인상과 예산 확보 없이 9.8% 오른 등록금 인상률을 요구하며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장은 사발과 단식을 진행했다. 그러나 작년보다 공제가 약해진 올해에도 등록금이 인상된다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으니 휴학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 혁신과 인간 회복에 이는 노동자만 돼...

노동자들에게는 구조조정 압박으로 건디가 힘든 한해였다. 롯데호텔, 대우자동차, 한국전력, 지리산 노조... 이들의 투쟁의 힘을 모아 민주노총은 해위예과 반대와 구조조정 반대를 외치며 김대중정부에 상대로 끊임없는 투쟁을 벌였다. 신자유주의정책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며 강제를 무너트린 김대중정부에 대한 투쟁의 구호는 올해에도 계속될 것이다.

▼ 종장되던 운동에 서약하세

용인배움터에서는 2000명이 조규철총장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머문수정이 없는 학과특례장소등록금조감위원회 구성소형장학대 과비지급 중단소강박장학금 50% 축소 등을 요구하며 학생회는 총장실을 점거하고 총장퇴진의 구호를 외쳤다. 이에 학교측은 총장의 지시로 '총장퇴진'이 써진 현수막을 강제철거해 학내 민주화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 김계고수 수업 막을 수 업어

외대 전 구성원의 힘으로 이루어낸 96년도 구제단 반대투쟁. 그 당시 구제단 세력을 옹호했던 장계고수들의 복귀를 저지하는 움직임이 2000년 초기에 활발했다. 관선이사 임기가 끝나지 않은 올해에는 박순준을 비롯한 구제단 세력 복귀 가능성이 제기돼 외대가 긴장하고 있다.



▶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북의 수괴라 불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김대중 대통령에게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김대중 정권은 참고독을 실현하려는 고종학과 선생님을 국가 권보를 위협한다는 혐의로 구속시켰다. 이에 고종학은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철폐' 구호에 손을 들었다.



▼ 건가해라, 우리 꼭 다시 만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앞서 없는 장면에서 동영이 많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듯하다. 그 결과로 6·15공동선언 합의문 4항이 신가속 상봉, 장기수 송환은 실시됐다. '나의 고향은 남도 북도 아닌 통일조국이다'라고 한 0.75명 독방에서 30~40여년을 지낸 장기수들의 눈물과 웃음을 볼 수 있는 한해였다.



◀ 외대 왜가 지기 않는다?

학원 3주체의 이해를 공유하는 대학평의회에서 제22학단이 구성되고 중장기 발전안을 발표한다. 하지만, 재경과감에서 늦어져 구성원의 이해관계에 연연한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학생 의견 반영도 구두 약속으로 수습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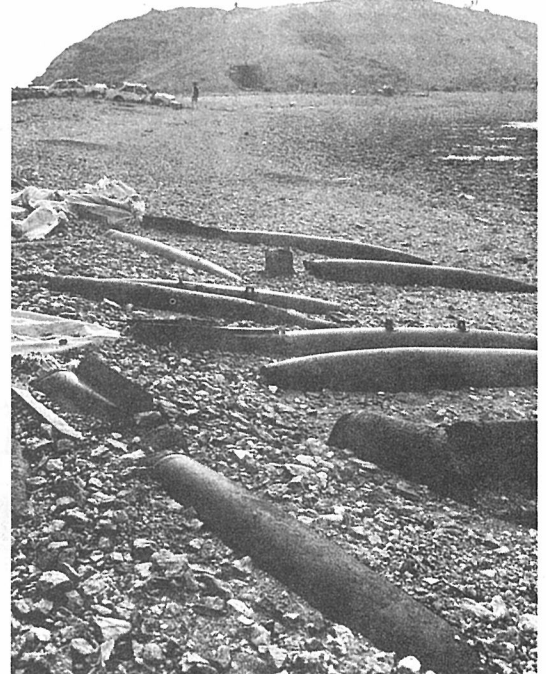
▼ 성폭력학칙제! 이제 중 안신되네.

"학교 회장실에서 용변을 보는데 칸막이 아래로 손이 갑자기 들어와 엉덩이를 만진다?" "으~" 생각만 해도 소름이 오백 서울배움터 학생회관 3층 회장실에서 적인 10월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제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 구제적인 처벌을 내릴 수 있고 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성폭력 학칙이 11월에 제정됐다. 이에 여자학생들 간에도 중후라기가 높아져 성폭력 예방이 조급해 진행되고 있다.



▶ 조선일보 밝히고 켜기다

통일위기가 높을수록 레드캠프를 자극하며 북에 대한 적대감을 유발하는 조선일보. 전국의 대학신문 기자들이 이 신문을 읽고 썼고 있다. 올해도 할말을 하는 신문을 강요하는 조선일보에게 보수층의 대변자라는 비판의 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외대문학상

새로운 일곱 번째

|시|평론|수필|소설|

당선작- '강물은 흐르르지' : 김혜영(동양·인도어 98)

강물은 흐르르지

당선소감

기쁘다. 기쁜 것 같다.
그 외에 다른 말을 덧붙인다 해도 그것은 사족일 것 같다. 그러나 너무 짧아서 안 되겠다. 주절 주절 원가 말이 길아졌고 많은 해도 해도 시원하지 않았다. 글이 만 이야기였던 것처럼 시원 것도 내겐 만 이야기였었다.
그런데 지난 여름 어느 날부터 짧은 말을 쓰고 싶어졌다. '이런 글이 시가 될 수 있을까'란 생각을 하면서도 내 멋대로 원가를 고쳐이곤 했다.
그리고 나는 부끄러운 글을 용모적으로 내놓았다. 운이 좋게도 당선에 되었고. 나는 기쁘다. 내 글이 단지 허튼 감정의 나열이 아니었음을 수 있어 참복하다. 누군가에게 설득력이 있을 수 무엇이든 것에 감사한다. 힘들지만 했던 청춘에게 선물되어 준 것에 감사한다.
그저께는 참 많은 눈이 왔었다. 빙점 아래에선 많은 것이 화석이 된다. '후두둑' 쏟아지던 빗방울도 '사뿐히' 내리는 강아지를 지낸다. 그 긴 이의 여유를 지난 내가 되길 나는 항상 기도하며, 마음을 쓰다듬는 그 흰 손길처럼 나도 외대에서의 추억을 쓸아내린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글 읽어주시는 심사위원께 감사드리며, 친절한 학보사에도 감사드립니다.

김혜영

(동양·인도어 98)



왜 저리도 수없이 강은 강인지
네 강도 내 강도 하나일 순 없었지

그대 내 가슴에도 강이 흐름을...

바다로 바다로 가면 바다가 있겠지
그대 흘러서 간대도 후회는 없겠지

저기 햇빛 망울망울 눈 시린 사람의 강
가슴 밑으로만 흐르는 먼 눈빛의 그대

내 눈부처 그대
내 가슴에도 강이 흐름을...

바닥까지 메달라 흙집질 내놓을 때도
우물 하나 품고서 생명처럼 흐르름을...

강물은 일렁이며 갔지
내가 주저앉아 가끔은 울었노라고

사람도 없는 사람의 강가
아직도 그대 그 서리에 앉았더라고

나는 또 잃어져 울었노라고
강물은 일렁이며 흐르르지

내게도 강이 있었더라고 흐르르지

심사평



정희성(시인)

새 천년의 아침을 밝히 줄 빛나는 시 한편을 만날 수 있을까 기대하며 작품들을 읽어내었다.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이거다' 싶은 글이 눈에 띄지 않는다. 우리들의 사생활이 아찔할 불안한 가운데 시작되지만 때론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본다.

용모적용 가운데는 실제로 읽을 수 있는 시대의 울림을 느끼고 있는 것도 있었다. MF, SOFA, 은행합병, 미디어, 노숙자 등 우리들의 현실문제들을 다룬 김정영의 시들은 주제 의식은 분명하지만 서정성이 지녀야 할 정서적 감동이 미흡하여 선풍 손에 잡히지 않았다.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실감나는 것이었다. 시는 기본적으로 읽는 이의 가슴을 건드려 주는 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반면에, 나머지 용모적용들은 시화성이 너무 부족한 것도 서운했다. 대학생들에게 기대해도 좋을 만한 문제의식이 보이지 않았다. 이 또한 읽을만한 우리 시대가 지닌 다른 얼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작지만 알뜰하게 가꾸어 낼 줄 아는 솜씨를 보인 김혜영의 시편들은 진정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그의 시 '강물의 자리'에 '강물은 흐르르지' 두 편을 놓고 형식임 끝에 '강물은 흐르르지'를 당선작으로 밀기로 했다. 두 편 다 모호한 표현이 눈에 거슬리는 정도이지만 정서적 울림을 주는 리듬이 살아있다. 용모적용 전반이 고르게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 있어서 시의 맛을 터득하고 있다는 신뢰감이 든다.



|시|평론|수필|소설|

서른일곱번째

당선작 - '서정이 이끄는 반추의 미학' : 김정영(자연대학원 화학과 1학기)
가작 - '웃음의 별' : 우정형(인문·철학 96)



抒情(서정)이 이끄는 反芻(반추)의 미학

- '沙平驛(사평역)에서'를 읽고, 박재구 / <沙平驛에서>/ 창작과비평사 / 2000년



심사평

김형철 교수
(필명 이만 · 한국외국어)

김정영의 '서정이 이끄는 반추의 미학'을 평론적으로 읽는다. '사평역'이라는 공간이 있고는 세계를 현실과 이상으로 분류하여 독자들이 읽기 쉽게 서술해 나간다. 시의 평을 독자는 시인이 제일 잘 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이 말은 시인이 시인의 마음을 가장 잘 읽기 때문이다. 또 시를 쓰는 사람이 존재에 대해 민감하다는 말도 된다. 김정영은 시인답게 시 한 편을 잘 분석해 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입실 안에서 시간, 즉 靑靑과 詩 韻이 숨쉬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독적이 보기에 되고 그 독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사평역에서 보이는 것이 불평등이며 풍부한 감성 언어가 아니라 생각하기에 앞서 가는 것과 오는 것, 기차 역에서 느꼈던 수 있는 (의자)를 먼저 확인해야 할지 알을까.

'사평역'은 평지인가 아니라 시를 읽는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준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기차으로 우정형을 '웃음의 별'을 봤다. 장구가 울고 또한 시를 대하는 것이 창작적고해서 더 주는 수줍음이지만, 기차으로 보는 이유는 시 한 편을 잘 써준다는 시를 분석해 내고 있는 것이 비평적이지 때문이다.

형식주의평론을 활용한 짧은 거기에 간 간 것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인용만을 하기보다는 시 한편을 나열으로 풀이한 지 채 때문이다.

이런데 중요한 것을 보면 평론의 수준이 다소 저하는 것 같다. 아무쪼록 추상적인 것보다 구체적으로 써보기를 바란다.

눈이 내리는 어느 겨울날, 목격자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사평역이라 불리는 작은 역의 플랫폼으로 몸을 녹이며 마추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자신을 발견한다. 이 사람은 여행을 온 사람일 수도 있고, 사평에 실연을 당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이 곳으로 온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렇듯 미지의 사평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깊은 내내이션을 통해 감각적인 표현을 취하며 이 사평역을 묘사한다. 정확히 말하지 않는 목격자와 닮은 것은 표현으로 삼아 내내 미정이 없는 세상을 돌진 사평처럼 자신을 소개하지만, 그는 깊은 抒情을 통해 곁에서 삶을 진지하게 고찰을 한다. 사실 <사평역에서>라는 시의 서정성은 김소월과 서정주의 그것과 비교될만하다. 그렇다면 해서 박재구의 詩상이 그들에 비해 抒情에만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니다.

작가 자신이 말하듯 그는 서정시를 담보로 새로운 담론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쓴 작품을 펼친다. 그리고 그 지리 사 평역으로 귀결된다. 이 과정은 독자에게 지나치게 통찰이 진 다른 세계처럼 보일지 모르나, 자제가 열어보면 문화적 유류 과정이 삶에 대한 통찰적이고 진솔한 모습임을 금세 알 수 있다. 결국 개인적인 정서의 끝은 보편적인 담론으로 도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서정주의 감각적 경험 속에 묘소의 요소가 들어 있음을 깨닫고, 추한 것 속에서 아름다움을, 아름다운 것 속에서 추함을, 선 속에서 악을, 그리고 악한 것 속에서 선함을 보았나면, 박재구는 어느 한 시평을 설명하고, 그 안의 공간까지 부여한 뒤에 자신이 돌아온 철결과 같은 연속적 여정을 되새김질한다. 이러한 시적 출발점의 차이는 같은 서정성을 담보로 쓰는 시를 두 사람에서 서로 상이한 맛을 내게 한다.

나의 驛에서

사평역은 실제로 존재하는 역이 아니다. 전라도 나주시 나주읍에 있는 남평역이 사평역의 원형이다. 공주에서 비둘기호 기차로 40분 정도 걸리는 이 역은 작고 아담한 공간이다. 현재 거대 콘크리트 문명에서 상상할 수 없는 나무 판자로 엮어진 역은 역의 詩의 상상사 발취된 장소로 거듭난다. '沙平驛'이라는 의미가 말하듯 모래 평지처럼 역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사평과 같이 바람에 날리듯 사라지는 작가가 말하는 역은 소멸될 수 있는 일시적인 장소이다. 다음 목격자에 대한 후설의 공간이다. 이러한 사평역을 상상하는 것은 작가가 존재하는 일이며, 그 공간을 찾는 사람은 자신의 서정성을 느끼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떠한 제도도 없다. 마구 얹은 사람은 그저 나의 驛에서 비친 거울처럼 말마디 역 밖으로 내리는 반을 골며 차다를 뵈는데, 대입실 안에는 靑靑(사평)이 존재하고, 창문 너머로 풍상에 靑靑(사평)이 숨쉬고, 어느 하나의 그림도 바릴 수 없는 파 한 분위가 역이 가진 의미를 설명한다.

박재는 詩처럼 오지 않았다

대입실 밖에는 밤새 숨이끼는 불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서있는 유리창마다
플랫폼으로 지쳐지고 있었다

작가의 사평역을 박재를 기다리는 풍경으로 그려진다. 마치 수채화를 그리듯 물감이 퍼지는 정적이 이미지들, 그리고 대입실 안은 혼란한 난로가 있다. 그러나 안 밖은 그리 커다란 간격이 없다. 안에 있는 플랫폼은 타자로서 작가가 말하는 역은 소멸될 수 있는 일시적인 장소이다. 다음 목격자에 대한 후설의 공간이다. 이러한 사평역을 상상하는 것은 작가가 존재하는 일이며, 그 공간을 찾는 사람은 자신의 서정성을 느끼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떠한 제도도 없다. 마구 얹은 사람은 그저 나의 驛에서 비친 거울처럼 말마디 역 밖으로 내리는 반을 골며 차다를 뵈는데, 대입실 안에는 靑靑(사평)이 존재하고, 창문 너머로 풍상에 靑靑(사평)이 숨쉬고, 어느 하나의 그림도 바릴 수 없는 파 한 분위가 역이 가진 의미를 설명한다.

그림처럼 매우 좋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현존의 플랫폼을 끝까지 단정히 찾았다

역 안에 작가가 앉아 있다. 그리고 플랫폼을 매개로 자신과 플랫폼을 연결시킨다. 플랫폼은 한 층으로 있으면 만만 한 것들이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작가는 사평역 밖을 안과 연결시키고, 그 안의 공간에 자신을 투영한다. 플랫폼은 위아를 내지않고, 금세 빠져버린다. 이를 통해 역이라는 장소가 플랫폼과 같은 이미지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하기도 한다. 역은 위아 없다 하는 것이다. 다음 목격자를 가기 위해 편의점에 준비하는 김소월을 강조한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창가의 손바닥을 끝까지 숨겨서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평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은 서로가 다른 목적으로 이곳을 찾았다. 사평이 고령인 사평도 있을 것이고, 한때나 친구를 만나기 위해 잠시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일 수도 있다. 혹은 사평이 이 곳에 있을 수도 있다. 그 많은 사평들 중에 사평을 찾은 사람, 그 중에 다시 자신이 다른 목격자를 가기 위해 편의점, 식당 등을 방문 하기 일췌하게 되며 대화가 열린다.

산다는 것이 때론 취한 듯
한 두름의 끝비 한 평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돌아간다는 것은 침묵이다. 산다는 것은 많은 것에 관해 침묵해야 한다. 이렇듯 깊은 정적은 죽음의 입장에서 삶을 바라보는 관조로 거듭난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자신을 알고, 먼 곳을 떠나 집의 고향들을 알 듯 사평역은 목격자에 대해 반사를 해 주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산다는 것이 오히려 즐거움보다 침묵으로 일관되어야 할까? 다음 행에서 시는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오래 앉은 기침소리/ 쓴 약 같은 입술에 연기 속에서/ 사색처럼 눈물은 밝고/ 그대 지금도 모두들/ 눈물의 화에 귀를 적신다) 라고 하며, 커다란 것은 쉽게 볼 수 있지만, 미세한 움직임이나 시간은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으므로 침묵은 이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다. 화음이 하나의 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화음이 여지없는 재가 소리를 찾는 것도 의미가 있다. 전체 속에 자칫 사라지기 쉬운 개인적인 감성도 몇 번의 다짐보다 더 큰 결단력을 내포하고 있음을 작가는 귀작 말처럼 조용히 건넨다.

자정 넘버

낮선음에 빠뜨림도 다 살았인데
단종일 같은 몇 잎의 차장을 받고
발향하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포함하는 나는
한층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발향하기 도착하고, 사평역은 멀어진다. 함께 했던 사색도 역에 머무르며 (한층의 불빛) 같은 눈물이 되어 난로 안으로 역에 불꽃이 된다. 결국 송이(반) 불꽃(안) 불꽃(안) 눈물(작가)의 순서는 사색과 반향이 전개되는 서정성의 이어달리기다. 그러나 그와 사적 연상작용은 운문들의 사적일 부림에서 서연유전해 있다. 자기 혼자만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이른자의 표현이 곳곳에 묻어 있는 운문들의 서정성에 비해 박재구는 다정다감한 정서와 깊은 자각이 존재하지 않는다. 작가는 총괄을 보여주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거나 이내 숨겨버린다. 그리고 모호한 말로써 그의 생각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박재구의 (사평역에서)는 공간이 시간으로 환원되고, 서정성 반추로 이어져 간다. 그리고 반추는 기존의 서정시와 그의 사적 배경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자신만의 역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沙平에 있는 驛

사실 작가의 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사평역에서>라는 시가 그의 세계에서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일시적인 언어이며 공간인지 알 수 있다. 같은 시에 발표한 작품을 보면, <수돗물도 솟아 웃으려는 고지대의 전방방울/ 창난제니 명아주풀 몇 잎과 함께 흔들려/ 풀에 나는 아내의 이야기를 나는 또 쓰고 싶다>처럼 구체적인 일상적인 정면을 도려낸다. 그리고 표현에 있어서도 농도가 진해진다. <보리밭을 같은 초가집들이 흥 위에 묻어 있고/ 호박밭을 고평창이 흥 위에 묻어 있고/ 한 그릇, 한 그릇 같은 여행을 소래로 한 사에서/ 공민에게 이화년에 편한하 그 낙서/ 한 시집처럼 눈물이 잠근 뿔처럼 서정적인 시를 전면에 내세우지만, 표현은 사실적으로 접근하여 이야기를 풀이하는 것이 작가의 방식이다. 그러나 (사평역에서)는 그 주위의 다른 것과 너무나 다른 구성으로 만들어진다. 풀도 사지도 보이지 않는 이야기, 말하려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 작가는 그의 일면을 꼭 다룬다. 반추는 시작되었다면, 무엇에 대한 고집인지 알 수가 없다. 사평역을 역전시키지 풀어나간 그의 말은 너무나 확고함이 없게 사라져버렸다. 이 일시적이고 무미미한 사평역은 작가가 상상해낸 장소이고, 지금과 다음을 연결하는 후설의 마당이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후 발표한 시들 중에서 <대입동> 시리즈는 매우 직접적이고 날카로운 詩情을 선택한다. 그것은 그가 사평역에서 자신과 밖의 세계에 대해 사색한 것이 결론일 수도 있다.

그는 <대입동>이라는 시를 통해 김반, 콘돔, 개새끼, 신세계, 창녀, 천막마고, 갈보, 가난 등과 같은 풍속적인 시어가 등장한다. 결국 삶과 가리개 문 <사평역에서> 그가 말한 것은 세상을 보이는 불평등한 것이고, 위상이 마냥 장구한 감성으로 빛나 안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던 것일까. 작가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공간, 사평 그리고 그 기차처럼 사라져버린 그의 사평을 보며 지친듯이 작가는 느꼈을

사색의 힘을 말하게 된다. 사평역이 있다는 설정이 매우 불안정한 일체적 구도이지만, 시집 속에서 유난히 반추하려는 이유는 검은 바탕에 흰색의 점처럼 하나의 일관된 靑靑에서 과감하게 빠져나왔기 때문이다. 작가의 선택처럼 우리는 사평에 가서 자신을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혹은 靑靑을 가져야 한다.

반입화와 기계화의 틈새에 자신의 감성에 의미를 두지 않는 현대인은 선택하기 보다 피동적인 자세로 생활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여기에 인터넷 문화까지 가중되면서 생활의 편리함과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했지만, 여유 있는 느린 공간감이 사라지고 있다. 재촉하고 빨리 말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군집 속에 사평은 존재할 리 없다. 그리고 그 역에서 다음 목격자로 갈 수 있는 가차도 기다리지 못한다. 한 반박에 없는 소중한 삶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사평은 그 시간에 쫓겨 자신이 가진 감성이나 느낌, 혹은 서정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듯하다. 기계 문명의 급속한 발전과 활용은 예외마저 그 안으로 흡수하고 있다. 사평역이라는 장소와 잘 짜여진 구성을 요구하는 정교한 정원을 요구하는 풍토는 이미 詩란으로 들어온 지 오래이다. 기계를 달은 듯한 사람의 시와, 사람을 달은 듯한 기계의 시는 절대로 갈을 수가 없다. 하나는 끝까지 사평이요, 다른 하나는 끝까지 가차일 뿐이다.

한국의 서정시나 서정성이 큰 약점을 가진 것도 이러한 인위적인 장벽을 만들어 일제나 독재시대에 크게 좌절되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 사평에서의 사색은 정식으로 말만도 없는 잊었던 감성이다. 그렇다고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찾아들어 느낄 수 있는 것이다.

沙平驛를 떠나며

驛과 驛사이에 철도가 있고, 기차는 그 안에서만 움직인다. 사 평의 삶도 비슷하다. 벗어날 수 없는 철로 안에서 시간의 역이 나타난다. 만약 시간을 표시하는 숫자조차 없다면 우리는 어디쯤 서 있는지 방향도 모른채 말없이 다다르는 죽음의 그 한자리를 맞이해야 했을 것이다. 작가의 더불어 사평역을 떠난다. 목격자는 맞고있고, 다음 역이 어떤 역인지 궁금할 뿐이다. 그래서 기다려 타는 것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그러나 역에서 머물러 타오는 플랫폼만은 계속 바라본다. 그 플랫폼이 될 무렵 그 안에 있는 자신도 사라질지 모른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두려움은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목격자를 말하지 않고, 침묵함으로써 대화를 건넨다. 가차는 말없이 간다. 철로를 따라가고, 다음 역이 무엇인지 알지는 아무도 모른다. 사평역에서 인생의 굴곡이 많이 생각나고, 여러 가지 감성을 얻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시작된다. 결과적으로 작가는 매우 현실적인 詩인으로 돌아간다. 일상적인 언어로 가득찬 삶을 자신의 감성처럼, 서정시의 중요한 소재로 선택하며 세상에 대한 불공정성, 혹은 반추를 사평에게 전한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와 함께 한 사평역은 뜻있는 장소로 남는다. 그렇다고 방향 없는 기차를 타는 것은 합당했지만, 그것은 해당, 즉 내가 살 목적이 있을 것이고 있으면서 떠나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잊어버렸는지.

『무너진 거리의 한쪽에 뛰어들어 싸움을 하고/ 그대 나를 우리 둘과 가난의 깊은 싸움처럼/ 오랜 싸움이 끝나지 않았으니/ 다시 몇 번인가의 사람이 지나가고/ 그 거리에 끝내(박재구, 「사평역에서」, 창작과비평사, 1986, 131쪽)』와 같은 시가 있다. 작가는 그것의 끝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여전히 싸움을 하는 자유로운 시간일 수도 있다. 삶과 타협한 싸움을 바릴 수 있는 것도 여기서 기인한다. 허리만큼 강한 들 조여 때고, 손목에 한 시제도 벗어나 주머니에 넣은 다음, 사평역을 생각하자. 현실에 있는 자신은 싸움을 계속하고 있지만, 자신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도심의 지하화처럼 쫓기는 마음이 아니라, 박재를 기다리는 어느 작가 驛의 느낌을 통해 삶을 이겨는 힘을 얻는 것이 아닐까. 플랫폼에서 손을 쥔 채 긴 서정의 세계로 빠져드는 시간을 다시 한 번 가자.

박재가 쓴다.

당선소감

잠시동안 문학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다. 전공이라는 것과 만나는 사람들과 기타 부수적인 것들이 언제나 문학과 분리된 호호한 靑靑(결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실수였다고 인정한다. 지금에 와서 문학은 싫어하고 생각한다. 반추하고자, 혹은 추수하고자 했던 욕심이 지나친 것임이 틀림없다. 문학은 언제나 내 곁에 있었고, 말하는 순간, 생각하는 순간, 늘 숨을 쉬고 있었다. 반추의 거울로써 일종의 상으로써 지극한 그러한 형식(존재)에 감사를 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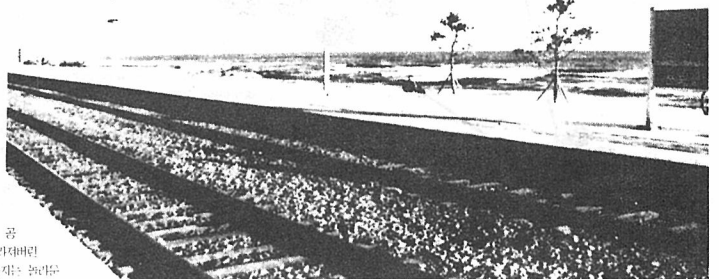
현재 내 모습은 평론을 쓰는 사람과 좀 색다른 것으로 보인다. 생활에서 미지의 물질을 만들기 위해 플라스티크 안을 치다치고 움직이고, 분자와 결정구조에 대한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렇다고 김수영에 대해보다 자신에 대해 생활하는 것은 없다. 오히려 보지 않는 것에 대해 많은 상상력을 더 자극한다. 이것이 계속 무언가를 위해 하는 한평생이 아닐까. 물론 어느 곳에 어떤 문제의 해답은 있기도보다 찾아야 한다. 포스트 모던의 근사하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박재구 시인에 감사를 표한다. 그의 시가 김수영을 자극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오랜 이야기와 방향을 함께 한 사평하는 사평에게 당선의를 전하고 싶다. 무언하 큰 인생으로 무너진 부모님과 종말에 가까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 화학과 대학원 사람들, 친구들, 항상 포퓰러 신념으로 나의 모든 감정을 자극시키는 사평님들, 후배들에게, 그리고 학부시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글쓰기나 삶을 받들어 편지 부끄럽다.

그러나 부족한 공간을 발견한다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인간이고, 누군가 글을 읽고 이야기한다는 즐거움은 함박웃음으로 표현하지 않는 그들의 글에서 얻는 단맛이라고 생각한다.

김정영

(자연대학원 화학과 1학기)



서른일곱번째

|시|평론|수필|소설|

당선작 - 'I LOVE' : 송주형(사회·신방 98)

가작 - '고우 투 원더랜드' : 이지나(서양·특입어 96)

외대문학!

i love...

“m...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이제 그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격양된 목소리로, 약간은 속삭리듯 내게 던진 말이었다. 그 녀석의 말은 무척이나 비현실적으로 들렸고, 그 말보다는 언제나 동하고 착각한 녀석의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는지에 무척이나 신기해했다.

내가 그 그를 만난 건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이었을지 추측된다. 하지만 그게 언제였는지, 녀석과 여대생 친해졌다는 건 전혀 기억이 없다. 아마 무척이나 시시하고 지루한 만남이었을 게 분명하다. 그는 그런 녀석이다. 자주 눈에 띄긴 하지만, 이 녀석과는 절대 교류를 할 수 없는 운명의 고리 같은 게 연결되어있는 게 분명하다. 아무튼 그런 녀석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은 뻔한 아니냐, 나에게도 엄청난 사건이며, 또 무척이나 신기한 일이다.

“그래? 그게 누구래?”
난 별 관심 없었다는 듯이 물었지만, 녀석 흥분되기는 꽤 마찬가지였다.
“어...너무 길까야. 어떻게 우리 동아리에 들어온 거고...” “아하, j...알지...”
4월에 동아리에 새로 들어온, 그는 유난히 하얀 얼굴에 다소곳하고, 청초한 이모양이 많은 이들의 호의의 대상이었다. 왜 하필이면 원가, 저서 20년에도 2개 월만에 청로로 좋아하는 된 상대가 동아리라는 물론 교내에서부터 알아주는 최고의 인기인걸까. 약간은 안쓰러운 맘이 들었다. 하지만 그의 한없이 피어오르는 웃음 앞에 그런 내색을 할 수가 없다.

“...그래 축하해” 내발도 던진 말에
“응 고마워, 너한테 말하고 나니까 훨씬 좋네.”며 기뻐하는...
이런 제게 정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활동하는 동아리는 'CINE LOVE'라는 영화동아리이다. 자गत 댜는 영화와 창작 및 비평활동이라든가 감독거리며, LOVE라는 후진군한 단어를 거창하고도 담당하게 간판으로 걸고있지만, 그들을 관상이라는 건 착각한 동아리원에게서 처박혀서, 바디나로 발라다보면서 감탄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배우에 대해 토론이나 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그늘고 그런 동아리지만, 영상 세대를 뛰니 요즘 위내에 영화를 좋아하는 모집단이 크보니 표본 추출은 그리 어렵지 않은 편이었다. 덕분에 항상 신입생원들의 가입은 끊이지 않았고, 역시 그 들 중 하나였다. 하지만, 나와의 이별은 조그만 불행상과 함께 조금은 수줍게 동아리 문을 열고 등장한 영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남자는 애정을 한껏 뽐내며 그 존재는 여러 신입생원들의 구석이 되었다. 그런 그를 기가 막힌 건, 그녀의 생일이 5월이었다. 신학과의 부신함과 소란스러운 어느 정도 가리않은 5월이지만, 세월과 개의 사막하고 어색함이 채 가지지 않은 시절이다. 더더구나, 녀석의 친부적인 투심함과 소심함으로 꽤 말 한번 제대로 건네 보지 못한 상태였을 게 분명한 시절이기도 하다. 하고 알 조그만 술집에서 떨어진 그녀의 생일파티가 예제는 무척이나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나보다. 그런 자리에서 언제나 시큰둥한 그가 그 날에 있었던 일만들을 잔잔한 것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5시에 애들끼리 만나기로 했는데 동아리방에는 내가 쫓겨만져 있었고, 그리구 한 5분쯤 기다려 하늘에 티를 입은 거 같지.” “와, 나, 별말 다 거역한다.”
“그럼...난 거기서 그냥 앉을 게 있을 때, 생일선물을 건넸어” “선물도 했어? 뭐였는데?”

“... ‘뉴욕스케치’라고, 알어?”
“장지도 생각해?”
“응”

“오...너가 선물을 다했어?”

사실, 장지도 상케의 삽화였더라면 그 때 당시에 배스 트러너였던, 무척 무난하고 무성의한 선 물이라 생각했을 뻔. 뒤로선 꽤 신중했 을 것이, 분명했다.

“전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 술자리 가서, 결정적인 게 있었어”
“결정적? 단어가 무성해 들렸지만 그는 그 단어에 힘을 주면 말했다.

“반대?”

“가 술을 먹고 난 다음에 말하, 내가 안주도 콜배이 무정함을 이 안에다 넣어 왔거든.” “네가? 예...설마...”

그 녀석의 주변머리를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과 반응을 했지만, 그는 내 얘기를 무시하고 계속 말을 이어갔다.

“너두 알다시피 내가 그런걸 함 해 보잖나...그러다 보니 양조일이 잘 안된 거야. 이제 살았는데, 그럴 남자가 함해서 필멸 매번 서투르다 지 않구 끝까지 먹어주는게야 난 일부터 잘못게 반응을 한다.

“어...무엇?”

“아니, 추하게 밉구, 정말 열심히 먹어왔어, 아무도 못 봤겠지만 그 모습이 양미

나 이해 보이던지...” 예쁘게 콜배이 무정함을 받아먹는 모습이라, 것두 엄청난 양의 콜배이 무정함을 쉽게 상상이 가는 장면은 아니지만 녀석의 친절한 묘사에 마치 내가 본 것처럼 생생히 느껴졌다. 잔잔한 미소가 내 얼굴에 번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래, 난 ‘아! 이 아이를 사랑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막연한 느낌이 오히려”
사람이라, 이 얼마나 의 부조화된 단어인가... 콜배이 무정함이라, 이 역시 얼마나 사랑과 이질적인가... 하지만 꼭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의 모습은 언젠가 잃었던 하루키의 장문을 떠오르게 하는데 충분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극히 하찮은 혹은 시시한 일에서 시작된다. 아니 거기부터가 아니면 시작되지도 않는다. 라는...

는 이제 그 사랑을 하는 그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거기다 그 날은 그 같이 밤을 같이 지냈나?”
“와, 단 애들두 많았잖아?” 그레두 술자리에서 언제나 10시엔 일어서는 가 발을 썼다는 건 꽤나 이해할 일인 것 같다. 하지만 녀석은 그게 자기 때문일 걸로 착각하고 있었다.

“아무튼...거기다 가 고맙다는 말까지 했어”
“뭐? 같이 배수구 놀아줘서?”
“응”

“너한테만?”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잖지만 서두...” 녀석, 알아들었나? 단정하게 귀였다.

착각이었던 뭐였던 어찌되었든 그는 그 날의 일을 내게 말하 내 이야기를 했 다. 들을 때마다 약간 각색이 된 내용들이었지만, 이야기는 의 달콤한 표정은 언제나 한결같았다.

아무튼 이날 이후로 의 나의 대화는 주제는 항상 같다. 내가 뭔가 다른 것으로 대화의 방향을 돌려 해도 몇 마디 나다녀 보면 언제나 “근데 j! 말아라, 이야기는 꽤 관련 것으로 흘러 버린다. 뒤 뭐까지 신나하며 꽤 관련 때를대는데, 그 그리 불만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 전에 무척이나 철학적이고 진지한 논쟁을, 예를 들면, 정제성이랄지, 종교, 존재이유, 인생 등과 같은 20살때라든가 특권이지, 한계인 그런 화제들이 그리워 질 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겐 그런 투쟁이 허용되지 않는다. 어떤 내용이 되었건 의 이야기를 듣는 게 내 유일한 행복이다. 내게 주어진 유일한 일이다.

“...나 좋은 일이 생겼어”
항상 그녀의 얘기를 하며 웃음을 짓는 녀석의 얼굴을 보는 게 제법 자연스러워졌을 무렵 내게 한 말이다. 보나바나 제기된 걸 확신하고 난 물었다.

“그래? 또 언제?”
“글쎄, 이번 학기 수업일 수업일을 잘 같이 들게 됐어” 과거 다른 이 들이 같은 수업을 듣게 된 건 정말 우연이 아닐 수 없다.

“오호...잘했네...친해졌어는 그게 낫잖아.”
“응...지금 나 너무나 행복하구, 당구 수업일이 기다려져...” 의 행복한 표정이 내게까지 전해진다.

“그래 얘기는 많이 나왔어?”
“응! 그거야 난 엄청 많이 말했어”
“뭐? 왜? 열에 몇이 그랬어?”

“아나 그럴 걸 할 수가 없잖아...” 대강진 뒤에 앉아서 수업시간 내내 개만 쳐

서 감당할 못하겠는거야. 그리고 그 큰 극장에 단 둘뿐인 것 같고, 만가가 심장에 서부터 박자 오르는 거야. 그러곤 박자 오른 그 물결을, 게, 온 신경세포를 타고 온몸의 만다까지 좌와 퍼져가는데...하늘을 나는 거 같구...” 길게 이야기했지만, 두서가 없이, 황실수설이다. 내가 약간의 실소를 머금으며 물 바라보고 있자 이내 는 “휴...m. 난 그런 거 알어?”라며 내게 간절한 표정으로 도움을 구한다.

“음, 그러니까, 얼굴이 달아오르고, 온 몸이 재워졌고, 등줄기에서는 시은발도 흐르며? 그러면서도 기분은 무지 좋고?” “어! 맞아...술도 막 거릴어지고 m. 너무 그런 적 있어? 왜 그런 거야?” 는 자신의 증세를 줄줄 얘기하는 내 얘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런 의 반응에 약간 우물쩍한다.

“그런 말이야, 나도 경험은 없어서, 잘못 모르겠지만 말하...흔히들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아닐까? 러브...엘...오...브...이...” 는 나의 약간 조롱 섞인 대답을 무척이나 진지하게 듣는다.

“그래...역시...그랬어...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의 울조림이 그로테스크하게 들린다. 그게 어땠다는 걸까? 는 지금까지 를 사랑한 게 아니었나? 아무튼 알 수가 없는 녀석이다. 묻고 싶은 것들이 무척이나 많았지만, 의 알 수 없는 반응에, 갑자기 감히 묻지 못하겠다. 내 생각에는 는 그때의 행복감을 지속시키기보다는 그에게 익숙해졌을 때, 갑자기 그것을 잃었을 때의 상실감에 지레 겁을 먹는 것일 까. 언제나 부딪히기보다는, 피해 가는 녀석에 대해 율화가 치밀었지만, 어찌됐건 그 그 지난 20년 간 그를 삼켜잡지 않도록 지켜주었던 단단하고도 치밀한 결집이라, 녀석 그 결집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일... 상처를 두려워하는 인간에게 주어진 것 따위는 절대 없다고 외쳐 주고 싶지만, 이럴 때 아무 말 없는 것이 충실한 결집의 역활이다. 아무튼 그 후로는 는 의 이야기를 피했고, 나의 만담도 뜸해졌다. 난 그런 를 안타까워했지만, 그 뿐이다.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좀 제나 재밌는 일이 생겼다는 녀석의 몇 안 되는 친구 중에 하나인 b!에게 한 상담한 것이다. 상담이라는 게 무어 재밌는 일이겠나 생각되지만, 그 상담 내용이라는 것이 그것을 재밌는 일로 만들어 버렸다. 상담 내용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b!의 사랑 고백 고개를 다들 예상하듯이 그 대상은 했다. “술이나 한잔하자”라는 b!의 말에 만들어진 술자리는 처음에는 어느 때와 다를 바가 없었다. 하지만, b!의 발발 돌리며 어떻게 깨나 이야기로 인해 순식간에 그 술자리는 연애 상담소로 변해버렸다.

“음...나...있잖아...이거...너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나...가 좋아졌?” 남들이 들으면 꽤 흥미 있어 해 줄 것 같고, 아니 흥미 있어 할 고백이거든. 지금의 토론 아니 그 잔이었던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시큰둥한 반응으로 대한다. 또 이미 대응 주 위에서 들려오는 무성함 소문들로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것기에 더욱 더 답답하기만 하다.

“뭐? 뭐고?”
“응”

“그래, 너 그 얘기하려고 오늘 나랑 술먹고자 한 거야?” 꽤 대강진 자신의 마음 때문일까? 굳이 자신에게 의 이야기를 하는 b!를 는 필요없음으로 의아해했다.

“어, 뭐 꼭 그런 건 아니네...결사한다.”
“그래, 뭐 아무렴 어때, 전 그렇구, 난 뭐 그렇게 좋아하는 애가 자주 바귀나?”
아무렴 어때 라는 말은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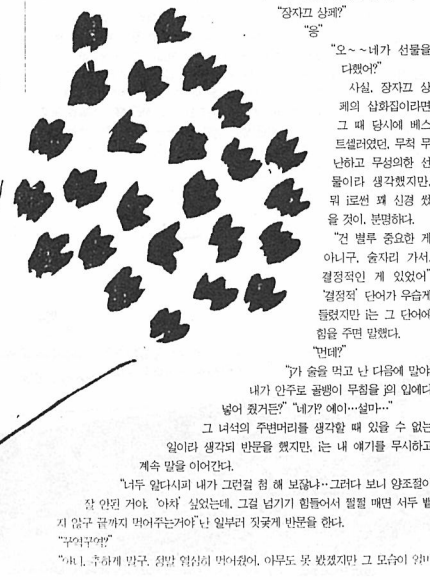
“아나...이런에 진짜야...그래서 내가 나 좀 도와줘라...” “그래 뭐...내가 도와줄

언제나 부딪치기보다는, 피해 가는 녀석에 대해 율화가 치밀었지만,

어찌됐건가 그게 지난 20년 간 그를 삼켜잡지 않도록 지켜주었던

단단하고도 치밀한 결집이며, 나 역시 그 결집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일...

당선작 송주형(사회·신방 98)의 당선소감은 개인사항상 실지못했습니다.



다했어? ...이런 식이다. 지극히 빠른 발상이다. 아마 몇 달을 같은 수업을 들으면서도 그 모습일게 뻔하다. 그저 그녀를 바라만 보고 있어도 행복감이 겨우 어릴 줄 몰라하는... 한없이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거든.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 이런 녀석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지만, 알 리가 없지 않은가...아니 알지도 크게 달라진 건 없었지... 녀석이 행복해지는 걸보고 싶지만 진투와 흥분? 아니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소용돌이친다. 애써 이를 진정시키며 대답한다. “그래...것두 좋겠지”라고 하지만 속으로 어쨌든 바보 같은 놈...”을 연신 외친다.

얼마 전에는 의가 단 둘이서 삼아영화를 봤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다. 다 j!에게 영화를 보여 가지고 한 것도, 가 영화를 보여 가겠다고 한 것도, 그 둘이 본 영화가 다른 3편이나 연속으로. 밤을 새우고 보는 삼아영화라는 것도. 그 녀석에게는 여자의 단둘이 영화를 본 게 그 때가 처음이었다.

“너랑 영화 봤다면서” 난 의 한탄 얼굴을 볼 거만 기대에 차 물었다.
“어” 하지만 의 얼굴은 침울하고, 대답에는 힘이 없다. 약간 예상 외였지만, 의 그런 반응에 호기심은 한층 더 커졌다.

“뭐 봤는데?”
“어, 같이 보긴 했는데 근데 뭘 봤는 거 잘 모르겠어”

“뭐? 그게 먼 소리라 생각되나?”
“아나, 영화가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뭐 솔직한 말을 수 있는 것이다. 너무 좋아서 영화는 안보고 의 얼굴만 쳐다

본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다시 물었다.
“...그럼 그걸, 그렇게 좋았어?”

“아, 너무 흔한스런고, 약간의 무서웠어”
“뭐? 무서웠고?” 녀석 귀조인화를 했다.
“뭐라고 할까? 아무런런의 극장에서 j!과 새로 앞에 있었니까, 너무 너무 행복해

진 별로 없구, 그래 네 맘 없었으니까 신원을 좀 슬게” 라고 말하면서 는 그 술자리 내내 b!에게 별로 영화부터, 순정만화부터 다같이 심지어 여성지에서까지 습득한 다양한 자신의 지식을 전수해준다. 녀석의 피지도 않는 열정에 는 무척이나 고마워한다.

“그래...고맙다 지식...너두 멀리 여자가 생기자 할텐데 말하...이런에 내가 랴 절필하면 하나 소개시켜주오...”

그 녀석의 상담은 녀석에게 무척이나 거대한 화두를 던져주었다. ‘내가 뭘 한 거지?’로 시작하여 자신의 처지고도 웅대한 사랑에 회의로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b!에게 하였던 무수한 이야기는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아나 나 다를까 는 나를 찾는다.

“m. 내가 뭘 한 거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통명제 내 반응에는 약간 놀라버 말한다.

“너도 잘 알았어?”
“말 하긴 말해, 자기한테 할 얘기를 라아면한테 해준 거지. 그러구, 내가 b!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나 있어? 난 위신! 가득한 프래가? 뭐 잘 되길 빌어? 내가? 난 절대 를 잊을 수 없어. 그 뿐아니라 난 절대 를 잊을 수도 없어. 난 그 런 놀이로 난 나를 사랑할 수 없는 놀이야? 왜냐? 난 누군가가 아닌 나 자신을 훨씬 사랑하니까” 말을 파버으면서도 너무 신나는 생각이 들었던만큼 말을 수 없었다. 아마 나의 의지를 벗어난 통제불능의 상태다. 이미 의 자괴감에 반응하는 것일 까.

“미 할까? 네 내가 남보다 뭐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너만 상처 하나 없이 고통받길 원하는 거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어. 그런 삶을 원한다면 죽어버려...” 이런 심한 말에도 녀석은 의외로 침착하고, 답답하게 이야기를 듣고 있다. 듣고서서 약간의 축축한 눈길로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린다.

“그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시|평론|수필|소설|

서른일곱번째

외대문학상

심사평



송영 (소설가)

편수가 많지 않은 대신 전면에 비해 깊이 있고 신선한 감각들과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다.
(i love)는 조금 기발하지만 전체적인 감각으로 재미있게 읽혔다. 3학년의 문장이 흥미롭다.
(고무 투 워터랜드)는 어머니가 개업한 가게 경험을 통해 바깥 세상을 눈 뜨는 줄거리다. 서두가 신난다는 본론은 차분하고 과감없는 진행으로 잘 읽혔다. (당신의 아름다운 이름)은 정성이 담긴 작품이지만 소재나 시점이 너무 낯은 것이었다.

(i love)는 발상이 재미 있으나 단순한 공포로 그런 감이 있다. (울음바다)는 실연과 꿈 얘기로 현대적 분위기를 보는데 현실과의 연결이 너무 약했다. 떠난다 수에 대한 묘사가 거의 없는 것도 약점이었다. (다름)은 한 사람의 일대기를 다룬, 장편적 서사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만큼 단편이란 특수성에 달기에는 작품의 밀집도는 될 수 있으나 좀 더 형상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심해의 물고기)는 한 기억상실자의 하루 기록인데 기억상실의 근거가 모호하고, 따라서 그 바탕에서 쓰여진 얘기들이 지금의 느낌을 준다. 주인공이 자기 중심을 지각하고 있다는 것도 부자연스럽다.

소설, 특히 단편은 구성의 미학이다. 그리고 재미있게 읽어야 한다.

(i love)를 당선적으로, (고무 투 워터랜드)를 가작으로 정했는데 대충 이런 기준에 부합되는 작품들이었다. 여러편의 정점을 바란다.

그런 거야? 그러구나 나 역시 상처 하나 없는 삶을 원하는 건 아니야. 내가 입을 상처 보든 다른 이에게 입힐 상처를 더 두려워하는 거야. 나로 인해 다른 이가 상처입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그래, 솔직히 내가 상처입는 것보다 상처 입힐 줄 아는 사람이 있어? 단지, 단지 난 남들보다 겁이 약간 더 많을 뿐이야. 그뿐 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욕망이라는 것은 조절 할 수 있어. 아니 조절해야 해. 그래... 난 쓰레기야...워싱턴이고...중앙거리의 밤을 가득히 떠다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내가 잘못했음을 절감한다. 무심하고 무심감만 두 보이는 거야. 무척이나 어린 놀이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아이 보기도 잘 아는, 내가에게 잔인한 것을 해봐라. 주체념은 것을 할 것이다. 이는 평생 날 안 볼지도 모른다. 난 사라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역시 20년 간 나를 지켜준 그 곁집은 강력했다. 그 날의 일도 의 방에 밖에 약간의 공원을 남겼고, 그 근원마저도 서서히 매워져 가고있었다. 그 시점에 또 다시 '결정적이며' 재밌는 일이 또 하나 발생한다. 나에게 사귀고 이야기했다가 그냥 좋은 친구사이로 지내자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나는 무척이나 충격을 받았는지 자신의 상담 상담원에게 위로를 받기를 원했다. 꽤 많은 술을 함께 먹으며는 또 다시 자신의 주관적 경험이 절대 아닌 100 퍼센트 객관적인 경험에 의해 얻어진 자신들을 주관적으로 사용해 나를 위로했다. 그때 한 무수한 이야기들은 단번에 일기로 그런 경험을 다칠 자신에게 들려 줄 만한 유용한 것들이고, 의 결정이 되어갈 수 있는 내용의 것들이었다. 물론 모두 i에게서 나온 것들이지만, 결정을 속으로 다쳐는 데로 달아두었던 그 마치 인식하지 못한 것들이었다. 그것들의 효용성에 대해 는 내게 물어왔다. 무척이나 힘겹게, 말을 들려가면서...

"m. 가 굳게 간대..."
"그래, 왜 j 때문에..."
"아니, 설마... 그런 아닐 개야"
"왜 그 정도 상처를 받을 일이라고 굳게 갈 수도 있지 뭐. 그래도 다들 다 그 게 바로 받을 수 도 있었는데 말야..." 난 일부터 좀 지극을 하는 말을 한다.
"어... 하지만... 하지만 말야...그게 나였더라도 괜찮았을 것 같지않아?" 썼다... 속으로 문제를 부르는 빈곤하다.

"그게 뭐 소아?"
"그게 말이야, 확실하게 할 게 같아. h를 보면서 어느 정도 용기도 얻었고, 음 머릿말? 평생 후회 할 일은 해서 안되겠지?" "그럼, 내가 이제 참이 드는구나. 후회 말이 잘 안 돼도 내가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야. 뭐 확률은 희박하지만, 말하자 본진 아니겠어?" "그래 알론. 이번 기회에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 "누구나 참엔 다그려가야" 난 무척이나 흥분했고, 도 내 근대 모에 만족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시 내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정을 거의 없다는 거... 각오하고 있?" "자, 난 왜 시작도 하지 않고 초를 치고 그래...말 안해도 그들은 나도 알지"

알마지만 해도 활기치고 해가 넘치는 의 모습을 본 게 몇 년 전이었는지 기억이 잘나지 못했다. 하지만 요즘의 는 매일같이 이렇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은 는 이제 전성기라고 할까, 의 아르바이트하는 커피숍을 찾아가고 하고, 이때 일까지 주고받았었다. 예전의 거의 스토브 수준이었던 알마의 사랑과는 이제 결별한 듯 보인다. 하지만, 아직도 앞에서 뚜렷 뚜렷한 것은 여하하다.

그것도 요즘의 의 이야기는 예전의 얘기와는 완전히 다르다.
"m. 나 이제 뭐 영하 두 보구 캐비닛도 타구, 남산터에서 서울 아령도 봤어" 자랄수록 내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마치 자기 집에 뛰었고. 뛰었고를 자랑하는 어린 아이 같다.

"와우... 좋았네. 서울아령 근처까지?" 나 역시 거기에 장난을 맞춘다.
"그럼...그것보다 아령을 배웠으니 한 가 얼마나 아령다운지 알아? 천사 같다..." "푸하하"

녀석의 천진스럽고 유쾌한 이야기에 웃음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여기에 나까지 여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 이름에서 술을 떼기 되었다는 것을 시키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 분위기도 좋았는데 거기서 왜 고백해버리지 그랬어? 평생 기억에 남는 고백이 될 텐데..." 이내 녀석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어 할거지? 그것보다는, 일이 안 떨어지...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지내면 안될까?"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의 답 악한 소리가 나온다.

"뭐? 나 왜 그래?"

"아...아니...잘 개야 할게가?"

황급히 얼버무리려는 녀석이 안쓰러웠지만, 이 상태에 오래 갈 수 없음을 지당한 사실이다. 이번 식으로든 정리는 해야 한다.

D-레이는 5월 16일로 정했다. 5월 16일이면 정확히 1년전 그에게 고통이 무뎠을 먹어준 바로 그 날이다. 내가 작곡 추천한 날이기도 하다. 수이상을 이랑까? 녀석의 정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한 내 나름의 배려였다. 뭐 생 일파티 비스무리한 것으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 고백을 딱 하면, 그리 나쁘지 않은 고백이 될 거라는 계산도 깔려있다. 다른 이벤트들을 봐 내가 꽤 공의를 해보았지만, 의 주변부터가 소외해 낼 수 있는 수준은 이것이 최고 수위다. 또 고백이라는 것은 거절당했을 때 그 준비를 위해 투자한 시간이나 정성에 비례해 비참함이 더욱 커는 법이다. 녀석의 경우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이상의 준비는 위험하다. 는 케이코와 캔 베풀을 사 가지고선 가?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나오길 기다렸다. 꽤 늦은 시간이었지만, 자네다니는 사람은 아직 많다는 는 케이코를 든 손이 어색한지 뒷집을 하고는 자는 사람을 의식한다.

"m. 사람들이 내만 쳐다보는 거 같아...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머리고 하지?" 뭐가 걱정이야...난 그냥 친구 생일파티 해 주는 건데... 이렇게 말하는 나 역시 떨리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어디까지든 난에게 의지가 되어 주어야 했기에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

"아, 나으냐. 빨리"

"아, 안녕 가..."

"그래, 안배...근데 그건 뭐야?"

"아...오늘이 네 생일이라서 케이코 조그만 거 하나 샀어" 웃으며, 정말이야...아... 좋다, 고마워"

는 진심으로 기뻐 해주는 듯 했다.

는 미리부터 근처의 공원으로 를 데려갔다. 나트룸으로 채워진 황색 거목들이 은은히 비추는 벤치의 풍치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의 스물 세 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아... 촌뽕" "후우...의 고마워..."

황금 공과 물안개 생일파티는 약간 절망적인 했지만, 이는 무척이나 호쾌했다. 약간의 어색한 침묵이 잠시잠시 있을진 했지만, 그러저러 좋은 분위기였다. 이런 자리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있는데, 이미 시계바늘은 12시에 가까워졌다. 난 무척이나 조바심이 났다. 캠퍼스에 취해있는, 녀석의 표정을 보니 여기서 그냥 만족해버릴 것 같았다. 난 그를 재촉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가 두 번 다시 찾기를

내지 않을게 확실했기 때문이다.

"오늘 진짜 고마워...늦었다...우리 이제 그만 가자" 의 말에 정성이 반짝 들었는지, 의 입이 벌어졌다.

"자기야...음...나 실은 할 말이 있어"

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의 사선이 흔들린다. 밤금 먹은 맥주, 한 캔도 채 되지 않은 맥주의 취기가 갑자기 밀려들고 뭉뚱해진다.

"어? 할 말? 언제?" 라는 의 말에 또 다시 정성을 차린다.

"어 우리 가면서 이야기하자" 는 도저히 는 마주보며 말하지 못했는지, 걸으며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래 그러자."

‘좋은 친구’... 이 얼마나 진부한 거절 방법인가? h가에게 들은 똑같은 말을 이번엔 가 듣는다.

"음 있잖아...내가 너랑 만난 건투 1년이 됐다."

녀석 내 생각보다 훨씬 젊었고 있었다.

"그래 벌써 그렇게 됐네...그리고 보면 참 시간 빨리. 그?" 아직 는 어떤 종류의 얘기가 나올지 짐작을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근데 내가 너를 좋아한 것부터 딱 1년이 됐다..." 앓...나왔다.

"뭐? 뭐라고?" 가 되묻는다. 확인을 하는 걸까? 아닌 진짜로 못들은 걸까? 아마 의 머리는 무수한 생각이 교차하고 있을게 분명했다. 아직은 그냥 얼버무리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머리끝까지 빨갛게 달아오른 의 머리는 이미 그 기능이 정지된 상태이다.

"나 기억을 못 할 텐데...작년 네 생일에 내가 너한테 고티를 무뎠을 입에 넣어줬잖아..." "어...그거나 기억하는데..."

의 의외의 대답에 는 콧물 놀린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의 고티가 있었기에 지금의 가 얘기가 자리에 서 있는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냐...

"정말이야? 어떻게 그럴 기억하?" 가에 한 치가 묻는다.

"그때 네가 너무 얼마나 많이 넣어 줬는지 화장실 가서 빨고 오느라고 혼났어..." "웃" 하는 나의 웃음소리와 함께 '와장창' 하고 의 속에서 똥가가 빠져는 듯한 소리가 들려온다. 끝까지 먹는 걸 보구 있었다더니... 는 허탈하게 웃을 짓는다. 하지만 여전히 고백은 진행중이다.

"그래, 어쨌든 난 그때부터 널 좋아했어. 그러니까 오늘이 널 좋아한지 딱 일년째 되는 날이야.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 본 게 이번이 처음이었거든. 그래서 무척이나 서늘했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다더구나"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좀 힘들거든... 그래서 일년이 되는 오늘 어찌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는 무척이나 침착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물론 시선을에게 맞추진 못했지만...

"오늘 생일 선물은 준비 안 했잖아...실은 안한게 아니냐. 오늘 네 생일 선물로 날 j 너한테 돌려줬어. 날 받아줄래?" "웃" 의 나의 웃음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녀석 일변만화를 너무 많이 봤다. 어떻게 그런 유치하고도 어색한 고백을...하... 녀석도 자신이 말해놓고도 민망하기보다. 미리를 굴러준다. 그런 의 반응에 는 무척 미안해한다. 는 말을 더 잊지 못한다. 그녀는 중에도 발걸음을 멈출 줄 몰랐고, 어느새 의 집이 시야에 들어왔다. j가 차분하게 말을 한다.

"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난 정말 몰랐어. 그냥 편안하고 좋은 친구로만 생각했는데...그런데, 역시 이래로 지내는 게 좋을 거 같아...좋은 친구로..." "웃" 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번엔 의 나의 웃음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좋은 친구' ... 이 얼마나 진부한 거절 방법인가? h가에게 들은 똑같은 말을 이번엔 가 듣는다.

"그래...뭐...나도 어떻게 하지는 게 아니라..."

얼버무리려 팔팔에는에게 의 집 대문은 탈출구로 보였다.

"어 다녔어...그럼 들어가..."

"그래...나 들어갈게...오늘 정말 고마워"라고 말하며 들어가는 의 뒷모습을 멍하니

"아 가자... 빨리 여기서 공상맞게 이리저리 말구..."

"m...나...내가 생각했던 거보다 훨씬 내가 를 좋아했었다 보다...정말 나 아파"

"그래, 알아...나도 그러니까...이제 그만 가자"

는 일어나 발걸음을 옮겼다.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의 넋두리는 계속 되었다.

"가슴을 누가 후벼파 내 버린 거 같아. 심장이 탐인 것 같은데, 그 부위가 육신 거러... 아니 누가 숨곳 같은 육신 계속 찌르는 듯한 느낌도 들어...꼭꼭 후셔...숨을 못 쉬겠어...나 이런 거 참아...어떻게 일로 계속 그러면 어떡해?"의 하소연이 듣기 괴로운 음부웃음으로 변한다.

"내가 있잖아...임마...언제나...내가 부르면...나타내고 내가 싫으면 사라져주고, 내게 듣기 좋은 말도 해 주고, 가끔 귀찮게도 하지만, 너밖에 없는 내가 있잖아?"에게 위로하려했지만, 나 따위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무척이나 자신이 싫어진다. 하지만 는 날 위로를 하는 듯이 힘없이 웅얼거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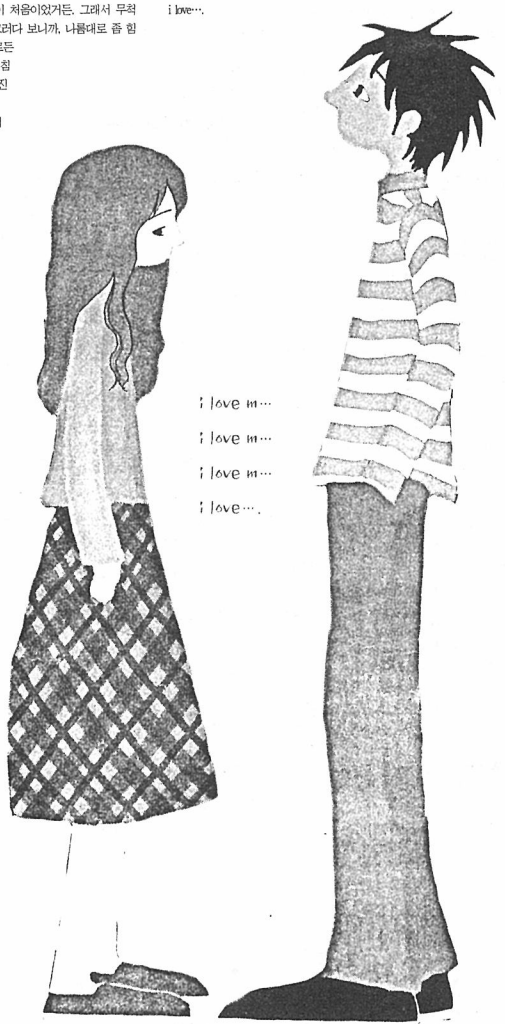
"그래 내가 있자......고마워...나 너밖에 없어 그래...내가 있었지..." 끝없이 웅얼었다. 점점 더 큰소리로...

i love m...

i love m...

i love m...

i love...



i love m...

i love m...

i love m...

i love...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열일곱번째

오대학보

(佛家哲學)교육 모형 연구

교사의 역할

⑥ 사람은 나사, 늑고, 병들고, 죽는다. 일반의 모든 행위가 이러한 모든 것이 고통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고통이라 한 것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 고통이란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식의 삶을 찾는 것이 어려운 것. 이것 또한 고통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어느 사람이 술을 해배면 중 경을 잘못 들어갔다. 그러다 어느 부부의 영원을 침범하게 되고 독화살의 임정을 받았다. 자! 여기서 과연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가? 독화살을 맞았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화살의 역사는 무엇인가? 화살을 맞은 그 사람에게서는 자유 의지가 있는가? 화살이 날아온 방향, 속도, 강도는 어떤가? 등의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람을 자유해야 하는 것이다.

삼 또한 그러한 것이다. 삶이란 고통 그 자체인 것이다. 그렇다면 화살이었던 무엇인가? 인식이란 무엇인가? 존재론이란 무엇인가? 등의 문제보다는 그 고통을 없애는 직접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그 해결책인 것이다. 모든 것이 고통이라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부처님 내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를 말한다. 첫째는 먼저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진리의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를 얻으려는 원인이 있는 것이다. 즉 고통의 원인이 있는 것이다. 셋째는 진리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넷째 진리는 그 원인을 제거하려면 무명을 벗어나 깨달음의 경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알아서 하는가? 위두나 할지 모르겠는 것이 이 길인 듯하다. 인도의 한 성인은 깨달음은 어디에 있는가를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을 한다. "깨달음은 시랑과 무덤, 집과 악연의 중립에서 나타난다"고 말한다.

모든 것이 고통이라고 했으니,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물론 말이다. 해나달린 변화와 더불어 사는 것이 곧 해탈이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것은, 고통과 기쁨을 나누어 사는 것이 바로 인생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고통도 행복도 없다. 사람은 일상을 살아가는 존재이다. 일상은 살아간다는 것은 크든, 작든 것에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한 선택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삶을 바라보면, 하, 선택은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책임의 정도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삶의 주체적인 입장에 서느냐, 아니면 객체적인 입장에 서느냐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삶은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객체적인 삶은 그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변화는 지금과 달라야 한다는 말인가? 아니면 변하지 않던데 변한 것 같아지는 것이 하도 없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삶이다. 삶과 죽음이라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주체적인 입장에 서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삶은 자에게 주어진다. 때론 삶의 주어짐이란 것은 윤리적인 면, 사회적인 면 등 어떠한 입장에 서는 것조차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삶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기쁨이면 슬픔이기도 하다. 그것이 아픔이면 생기도 있다는 말이다. 때론 이러한 양면성을 인정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다. 삶에 지칠 때, 어떤 삶이 내 생각대로 되어질 때 모두 그 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일상을 살아가는 존재는 왜 삶이 고통이란 것을 이겨내려 하는 지를 그 목적성에서 자신의 처지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람과 부딪히다 보니 내가 합당한 것이 자신에 비추어 얻고, 고되고, 괴롭고, 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 이외에 그 어느 것도 없기 때문이다. 자에게 그 문제를, 근본적인 면에서 끌어올려 존재와 맞닥뜨린 삶의 새로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경(鏡)처럼 제자가 말했다. "스승이시여, 저는 빛나는 몸집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먹지 않습니다. 스승님은 어떠십니까?" 제자가 말했다. "그대는 삶을 초월한 사람인 듯 하군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먹고 싶으면 재료를 사서 직접 만들어 먹습니다."

이 말은 자를 찰라 넘겨 버릴 수 있을 수 있는 그 광범한 것이 깨는 대화이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깨달음이란 것이, 불교란 것이, 삶을 살아가는 한다는 것이 꼭 허무적인 것이 아니라, 낙관적인 것이요, 인간 연호의 승리가 재발한 것이며, 작곡적인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즉, 결론적으로 밝혀진 선택을 하며 사는 일상의 존재는 양면성을 생각하며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고통을 떠날 수 있다.

통한 자 찾지 수업 교안을 구성해보았다. 이 수업이나 철학 교육을 할 때, 교사의 역할은 수업성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선 실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있어 교사 가 유념해야 할 사항과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한다.

철학교육의 목적이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라 본다면 철학교사는 학생들에게 철학이 이론이나 지식을 전수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될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수업을 이끌어야 한다.

그렇다면 학생 스스로가 사유하고 말할 수 있는 수업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었지만 현재의 교육환경에선 무엇보다 지금의 교실환경에서 가장 사용되고 있는 토론식 수업이 가장 효과적이고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되어진다. 하지만 이 수업방식은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19세기 교육 환경 (지금 내게 한국의 교육은 '19세기 교실'에,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말이 유행했었다. 이 말은 곧 우리 나라 제도 교육의 문제점을 압축해서 가장 잘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비록 현재의 교실 환경은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GNP 대비 해라는 교육재정의 확보도 진전이 없는 상태이며, 교사의 수업권조차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수업 이외의 과다한 잡무, 과밀학급, 입시위주의 제도교육 등 아직 우리교육의 현실은 어느 선결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로 대표되는 열악한 교실환경과 과밀학급,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 사교육의 성행으로 늘 수업시간에 조는 학생들, 상하급 성격의 학생들은 이미 학원에서도 다 배운 내용)이 수업이 제가 없거나, 하위권 학생들은 너무 어려워서 수업에 따라가지 못해서-이런 이 토론식 방법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 어렵다.

라빈스키는 "나는 또한 많은 수업 중에 토론을 진행시켜 주고, 때로는 그 토론이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토론의 대부분은 내가 학생들에게 교재의 내용에 관해 질문하고 학생들이 이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거나, 아니면 틀린 대답이나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나는 내가 답을 알지 못하는 질문은 결코 하지 않았다. 나 학생들은 수업 중에 내를 제외한 누구도, 심지어 동료 학생이 발광 한 말에 대해 이야기 할 때조차도 거의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는 이유 중의 한가지는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이 내 얼굴을 볼 수 있었던 반면 학생들은 각자의 뒷모습이나 옆모습 밖에 볼 수 없었다는 데 있다." (윤석우, 플라톤의 '파이돈'을 통한 철학교육 모형 연구, 『철학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 철학교육 연구회, 1998) p.135 재인용)

과연 이 얘기가 사실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일까? 당연히 아니다. 우리의 현재 교육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게 없는 모습이다.

우리의 현실이 이러한 과연 교실환경은 어떠한가 하며, 어떤 식으로 토론 수업을 진행하고 또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수업에 참여시켜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선 교실환경이라든지 과밀학급 해소 등의 하드웨어적 문제들은 실제 교육재정이 먼저 확보되어야 하는 점(이로 인해서)은 논외로 하고 토론 수업에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끌어내는 교사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기로 한다.

우선 교사는 토론이나 대화하는 주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해답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노력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사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란 선입견에 자신의 대답이 정답이 아니면 어떠한지라는 걱정을 하게된다. 이에 교사는 교사 자신이 모든 해답을 다 알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학생에게 이해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하고 스스로가 해답을 찾아내고 갈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토론식 수업에서 학생들 스스로의 생각은 정답이나 오답이 있을 수 없음을 주지시키고 각자의 생각을 주지 없이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교사나 학생이나 서로 알지 못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나 전문가들 등을 통해 어떻게 그 문제를 풀 수 있을지를 방법을 탐구해보는 노력도 좋을 것이다. 결국 자신의 궁금증을 학생 스스로가 탐구해보도록 유도하는 것이 철학교육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될 것이다.

또한 교사는 대화나 토론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어 나갈 것인가를 미리 예상해서 여러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던진 질문에 대해 여러 반응을 예상하고 미리 생각해보고 예상 반응이나 답변 등을 예상하고 놓고 수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물론 대화나 토론이 예상한 대로만 진행되는 것일지라도 그런 경우에도 교사는 많은 질문을 미리 생각해보고 미리 생각해 보고 함께 대처해

대화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고 체계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교사 역시 정답만을 생각하지 말고 문제의 해결은 학생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수업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한다.

자칫 내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에 따분하고 재미없게 느껴질지 모를 토론식 수업에서 최대한 우리의 가까운 일상적인 얘기들이나 재미있는 예화, 우화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켜야만 수업이 제대로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수업시간에 교사의 설명이나 친구들의 답변에 재미를 못 느끼고 따분해 하기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나 우화들을 예로 들면 또랑또랑한 논법으로 쳐다보면 그 학생들을 잊을 수 있다. 일단 이러한 방법 등으로 학생이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같이 참여 할 수 있는 계기만이라도 마련된다면 철학교육의 우선 과제는 선행될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현재의 제도교육 속에서 철학수업을 진행하기에 다른 과목들과는 달리 철학교육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내외적으로 아직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하지만 교사가 함께 생각해보고 각자 자신의 생각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수업 유도를 나다면 학생에게 철학을 가르치는 것일지언정 어렵거나 수업에 있어 교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V. 나가는 말

철학과목이 고등학교 교양필수과목으로 채택된 이후 많은 학자 교사들에 의해 사회적 상황, 학생의 관심과 수준을 반영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철학교재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철학 원전을 통해 철학적 주제에 접근하는 방식의 교재개발이나 학생과 우리의 일상적 삶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실적 문제점들을 철학적 이론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교재개발 등의 다양한 교재개발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원활한 철학수업진행을 위한 교수법의 개발도 함께 연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논자는 고등학교 철학교과서를 텍스트로 해서 불기철학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돕고 학생 각자가 생각해야 할 문제를 스스로를 통해 스스로가 사고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흥미 있는 지평을 통해 학생이 적극적인 자세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현재의 고등학교 철학 수업에서 활용되어질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논문을 준비하였다.

지금의 제도 교육현실에서, 때론, 토론식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앞서도 얘기했었다. 선결해야 할 하드웨어적 요소들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교사나 학생의 상충되는 많은 분위기 속에서 과연 수업은 현실적이야 할지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오히려 철학 수업은 다른 수업과 달리 내선 상충에도, 수능시험의 압박감에도 시달리지 않는다는 의미의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수업이 학생들의 성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수업이라면 교사의 다양한 시도나 노력, 노력에 따라 다른 어떤 교과목보다 더 자유로게 수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꼭 하의 장단만을 찾아내기 위해 한없이 되지도 않도록 좋을 것이고, 수업진도를 맞추기 위해 허덕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수업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해 가더라도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모든 수업준비를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상황에 맞게 수업방향을 바꿀 수 있는 유연한 수업운영도 좋을 것이다.

물론 교사는 예까지 않게 벌어질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생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예를 들자면 요즘 청소년층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는, 음악인, 배우는, 등등의 기본적인 매질적식 확보보다는, 비록 전문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요요를 치고도 머로르는 시위, 정치, 경제, 문화적 이슈들까지도 두루두루 섭렵해 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모범답안을 꼭 미리 작성해 놓을 필요는 없다. 앞서 말했듯이 오히려 학생과 자신의 토론 수업을 유도하기 위해 해한 학생들에게 교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일종의 선입견을 없애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겠다. 학원이나 예가 다르면

서, 토론하면서 그렇게 함께 정의 내러가는 것이 자연스런 수업 분위기 유도에도 좋을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더불어 현재의 교실수업에서 누구나가 정, 오답의 두려움 없이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런 대화를 이끄는 교사의 노력이 더욱 절실한 필요할 것이다.

철학교육의 가장 일차적 목표가 철학적 물음에 대한 답을 스스로 탐구해나가는 노력인 철학함의 실천을 가르치는 것 이리만 말다.

(참고 문헌)

- 신일철 외, 고등학교 철학,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7
- 김진택, 철 그리고 글, 광주 : 도서출판 보림, 1996
- 홍기삼, 불교문화의 이해, 서울 : 민족사, 1997
- 유상중, 생활과 불교의 진리, 서울 : 학문사, 1997
- 해리스나, 철에서 배우는 불교, 서울 : 우리출판사, 1998
- 곽철환, 불교 길잡이, 서울 : (주)시공사, 1995
- 교수불자연합회 편자, 불교의 현대적 조명, 서울 : 민족사, 1989
- 유학수나, 새로운 불교공부, 대구 : 관음의 집, 1993
- 김재용, 그 마음을 비춰라, 경북 : 도서출판 용화, 1995
- 인권환, 꽃피고 물 흐르다, 서울 : (주)나남출판, 1999
- 한재훈, 백발만사, 서울 : 우리출판사, 1997
- 이기영, 불교 개론 강의의 삼권, 서울 : 시단법인 한국불교 연구원, 1998
- 불교 개론 강의의 삼권, 서울 : 시단법인 한국불교 연구원, 1998
- 불교사회문화연구소 편, 현대한국불교론, 서울 : 도서출판 이리, 1983
- 고익진, 현대 한국 불교의 방향, 서울 : 경서원, 1984
- 가나호나 수유 외, 대승불교 총서, 서울 : 교학사, 1992
- 통문스나, 불교의 이해, 서울 : (주)괴원, 1997
- 이명수, 불교우회, 서울 : 지성문화사, 1997
- 한재불교신문사, 생활속의 불교수행, 서울 : 여지사, 1998
- 임지스나, 불 이야기, 서울 : 도서출판 은우사, 1996
- 윤석우, "플라톤의 '파이돈'을 통한 철학교육 모형연구", 『철학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철학교육연구회, 1998
- 장기영, "고등학교에서의 철학 교육의 한 모형", 『철학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철학교육연구회, 1998



박찬규 교수(철학)

이 논문은 고등학교 철학 10개 단원 중 하나인 '불기철학' 부분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를 모색한 일종의 교과 교육학 논문이다. 어떻게 보면 논문이라기보다 수업지도안을 중심으로 교수·학습·내용에 실을 것이고 교사가 유념해야 할 점 등을 덧붙인 교육대학원 term paper 정도도 아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적으로 선행된 이유는, 첫째, 직접 현장에서 고민해본 문제의식의 산물이라는 점(특히 교재에 대한 강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데 심지어 이 점을 매우 중시한다) 둘째, 주어진 불교철학 지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그 내용에 대한 친화적 애정이라는 점, 셋째, 논문의 내용이 그 현실성과 자료의 풍부함 때문에 현장 교사들의 실제 수업 진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몇몇 표현상의 오류, 논문으로서의 치밀함의 부족, 그리고 교수 개발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의 제시가 미흡한 것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끝은 이가 계속 점진하여 훌륭한 철학 선생님이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중 략

II. 교사의 역할

지금까지 불기철학의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와 생각해보는 문제가 제기 되고, 한편으로는 스스로 질문해보는 연습을

학보 이런 학생들을 했으면 좋겠다

2월 - 새터

처음 만나는 대학, 그리고 자유

"안 가면 왕따가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선배들이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잘못된 소문만을 듣고, 새내기 새로 배움터(새터)를 걱정하는 새내기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새터는 우려하는 것처럼 '대학생이 된 기념으로 술만 마시는 행사'는 아니다. 새터는 중·고등학교 시절 까여진 틀에 맞춰 살던 새내기들에게 대학생의 정반을 소개하면서 처음 주어진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을 일깨워주는 자는 취지에서 열리는 행사다. 또한, 대학생들을 함께 할 선배들과 동기들을 만나고, 민중가요·유흥 등 아직은 생소한 대학문화를 접해볼 수 있다. 이렇듯 대학생활의 신호탄이 되는 새터에서 새내기들은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용인배움터에서는 새기회를 대상으로 새터에서 지원봉사, 유흥 등을 함께 할 새내년(새터 준비위원회)을 모집한다. 새터에 참여한 경험에 있는 이선영(사회·불이 99)장은 "갑새와 선배들이 이야기 나누며 대학생활의 밑거름을 그려 볼 수 있었어요"라고 전했다.

4월 - 4·19 기념행사

4·19 정신을 내 가슴에

올해로 41주년을 맞는 4·19혁명 학생들과 시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부침한 것에 맞서 고려대 학생들의 봉기로 시작되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해마다 이러한 혁명 정신을 계승하고자 4·19 기념행사를 열고있다. 2000년 서울배움터에서는 4·19기념 공원까지 자전거 타기, 단발염모여담배를 집합했다. 용인배움터에서는 매년 학생회관 앞부터 모원까지의 마라톤 후 시상식이 이어지고, 4·19를 이끌었던 선배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집회를 연다. 이 행사의 취지는 단순히 선배들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생각만으로 끝이 아니라, 모든 일에 공감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의 중요함을 일깨워 준다. 이 기념행사에 참가했던 서울배움터 이유준(사회·신문방송 00)군은 "민주주의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내년에는 새내기 여러분들과 함께 자전거를 탔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5월 - 대동제

우리 문화를 알리기

대학가에서 '축제'라는 명칭 대신 '대동제'라는 명칭을 쓰게 된 것은 불과 10여년 남짓 되었다. 80년대 초 하군단 주최로 열린 외남축제는 고압적 오락과 유흥을 일관한 행사내용 때문에 대중들과 괴리되어 있었고 공동체적인 요소가 없었다. 이에 대학문화의 총체적 산물이자 전통을 재발견하는 자리로서의 축제에 요구하는 문제의식이 확산되었고 그 결과 등장한 것이 88년 시작된 '대동놀이'이다. 88년 총학생회 부활은 본격적인 대동제로의 전환을 가져왔고 그 후 대동제는 시대별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대학문화를 담아내는 공간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현재에 이르는 대동제는 5월에 3일 정도의 기간에 걸쳐 열리며 전 외대인이 하나되는 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최근에는 통일에 대한 기원을 노래하는 '통일노래만마당'이나 주민과 학생이 함께 개최하는 '주민학생만마당' 등의 행사가 벌어진다. "저는 대동제 때 주장을 했는데 모르면 사람들이 진해졌고, 열심히 참여하면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는 장예진(사회·정병계열 00)의 말처럼 대학문화의 대표적인 대동제 속에서 고민을 공유하며 주체적으로 참여해보는 것은 어떨까?

7월 - 농활

농촌에서 뭘~서 말으러 가자

농활을 '농촌봉사활동'의 약자로 잘못 알고 있는 새내기 여러분들이 많겠지만 정확히는 '농민학생대동제'의 약자이다. 농민이 농촌에서 일손을 거드는 것 말고도 농민들과 생활을 같이 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농가부채, 수입농산물 개발 등 농업경제에 대한 토론을 벌이며 고민을 공유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농활은 일반적으로 봄, 여름, 가을 세 번에 걸쳐 가게 된다. 오전·오후에는 일손을 거둬고, 저녁에 반찬활동을 하는데 야생초, 야생꽃, 민반, 참·장넌반으로 나누어져 각각의 특색 있는 활동을 벌이게 된다. 야생초에서는 아이들 공부도 봐주고 유흥도 가르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여성농민반이나 참·장넌반에서는 어른들과 어울려 술잔을 기울이며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다. 농민들의 집을 방문하여 농촌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마을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농활에서 안 느낄 수 있는 재미이다.

10월 - 세민전 세민제

외대들의 '세계'를 찾아

오로지 외대에서만 할 수 있는 축제가 있다. 각국의 언어를 배우는 외대의 '특성'을 삼켜 여러 문화를 선보이는 세계민족문화축전(세민전), 세계민족예술제(세민제)가 바로 그것이다. 세민전과 세민제는 민족춤, 민요노래 공연과 세계음식을 식전, 세계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로 이루어진다. 세민전은 필수년도 용인배움터에서, 세민제는 필수년도 서울배움터에서 각각 열린다.(서울배움터의 경우, 세계영화제는 매년 개최된다.) 2000년 서울배움터 세계영화제는 각국 문화의 이해를 돕는 영어 영화와 최근 소개되고 있는 북한영화를 상영해 눈길을 끌었다. 외대생들은 세민전과 세민제를 준비하면서 소속 과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뿐만 아니라 선배와의 관계도 돈독히 한다. 공연 후 참가했던 많은 학생들이 인기인으로 부상하는 것도 외대인들이 세민전과 세민제를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2000년도 세민전에서 아소관(아랍의 전통 춤)을 선보인 박영민(중학·아랍어 99)은 "공연을 준비하면서 밤하늘도 보고 학교에 나와서 연습하는 것이 귀찮기도 했지만 우애들과 친해지고 아랍의 바나나를 보고 연구하며 아랍의 문화를 더욱 이해 할 수 있어 좋았다"고 전했다.

외대학보?

하나 - 한글전송신문, 상업적광고배제...

대학원론의 선도주자로서 역사를 느낄 수 있다!

둘 - 한겨레, YTN, 로이더 등...

전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선배기자들과 만날 수 있다!

셋 - 교수, 직원, 학생 3주체의 삶을 사진기와 펜으로 경험할 수 있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외대학보사는 어떤 곳인가요?

난 언론에 관심있는 이학번 새내기